



# 리볼빙 지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카드로 쇼핑, 대금 지불은 일정액으로 매월 얼마 안 된다는, 이런 선전에 끌려 무심코 쇼핑을 거듭하게 되는 리볼빙 지불. 뒤에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것이 큰 영향이나 비극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최근, 활발히 리볼빙 지불이 선전되고 있어 많은 들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볼빙 지불로 하면 다양하게 특전이 붙는 일이 있어 잘 이해하지 않고 리볼빙 지불을 선택해 버린 적은 없습니까? 이 리볼빙 지불, 구조를 모르고 계속 가벼운 기분으로 사용하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빛이 눈사람 커지듯이 커져 자기과산에 몰리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리볼빙 지불의 구조와 수수료라고 하는 이름의 이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리볼빙 지불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번은 원리 정액방식으로 지불할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리정액방식은 지불액은 매월 일정합니다만 일정액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이 지정한 금액으로 일정하게 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만엔 정도 쇼핑했을 때 매월의 지불금액에 따라 지불 횟수와 지불 총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수수료는 카드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15%로 계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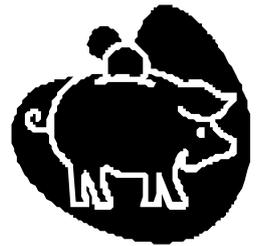
(우수리가 생겼을 경우, 최종회의 지불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이용금액	수수료 · 이율	매월 지불금액	지불횟수	지불총액
100,000 엔	15%	5,000 엔	24 회	115,782 엔
		10,000 엔	11 회	107,497 엔
		20,000 엔	6 회	103,923 엔

매월 지불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불 횟수가 증가하고 지불 총액도 증가해 갑니다. 이것만 봐도 반제 기간이 길면 그 만큼 손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층 더 무서운 것은 매월의 지불이 일정해 빌리기 쉽기 때문에 반복해 필요이상으로 사용해 버려 차입 금액이 증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차입 잔고에 대해서 이자가 들므로 잔고가 증가하면 지불하는 이자도 증가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지불하는 최저 지불액 중 이자 분의 비율이 증가해 반대로 지불하는 원금이 줄어 듭니다. 그 결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원금이 줄어 들지 않기 때문에 지불이 끝없이 계속 되게 됩니다. 게다가 리볼빙 지불 수수료는 꽤 비싸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불액을 늘리거나 일괄 반제할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 회사의 대부분이 지불액 증액이나 일괄 반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홈 페이지상에서 반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카드 회사도 있습니다. 꼭 이용해서서 반제 플랜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크레딧 카드는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마법의 카드는 아닙니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 글 우에시마 나오미)



[www.ficcc.jp/foreign/](http://www.ficcc.jp/foreign/)

●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새 주소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녀 의료비의 수급 자격증을 보내 드렸습니다**

후지미시에서는 중학생까지의 의료비를 무료로 합니다만, 4월부터 이용하는 새 「자녀의료비 수급자격증(황색)」을 보냈습니다. 초중학생의 자녀분이 있는 분은 확인해 주세요.

초중학생의 의료비 조성 방법은 병원 등에서 일단 돈을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시에 지급 신청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의 육아지원과에 상담해 봅시다.

**「아기의 역」(사진)이 생겼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때 기저귀의 교환이나 수유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현재, 공공 시설이나 민간 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간판이 있는 곳이 아기의 역입니다. 보이면 부담없이 사용해 주세요. 다만, 밀크를 타기 위한 뜨거운 물은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2011 년도판 「자원물·가정쓰레기 버리는방법 방법」**

후지미노시에서는 「2011 년도판 자원물·가정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라는 해설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각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이웃과의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쉬운 생활 습관입니다. 외국인이나 라고 말하기 전에 자원물이나 가정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몸에 익혀 주세요 센터에서는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어 교실에서도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교재로서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용해 주십시오. 「영어·중국어·한국어·포르투갈어·타갈로그어·타이어판의 쓰레기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 전화를 이용한 무료 통역이 스타트**

대응하기 위해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는 사이타마현내의 14 곳의 관공서창구(사이타마시 10 구·와라비시·히가시마즈야마시·미사토시·나메카와쵸)에서 「휴대전화회선을 이용한 통역업무」를 본격적으로 스타트했습니다.

통역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관공서의 안내에 가 문의한다 (일본어가 불안한 분은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모해 가면 좋겠네요) ⇒ ② 안내된 장소에 간다 ⇒ ③ 메모나 말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 ④ 직원이 통역자에게 전화 연락 ⇒ ⑤ 그 자리에서 통역자를 포함한 상담이 시작된다 자세한 설명은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로 전화해 주세요.

**● 기시카미씨의 「풍습·신기한 일본인」**

벚꽃나무아래에서 청색시트를 깔고 음료수나 음식을 펼쳐 벚꽃을 감상하고 대화를 즐기는 풍경은 일본 특유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회를 겸한 꽃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만 「고주망태공동체」라고 하는 말도 꽃놀이 등의 연회자리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상사나 부하 상관없이 모두 같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말로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고주망태공동체」라고는 해도 상사와 부하가 직급에 상관없이 도가 지나치게 행동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주망태공동체」라는 말은 그 내용보다는 그 언어의 사용을 즐거워 하는 것에 존재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저뿐일까요. 신중하고 사양을 미덕으로 아는 일본문화는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근처에

있는 「다이벤텐 노모리공원」도 벚꽃의 명소입니다.

센터에서 일본어를 배운 뒤 피곤해진 머리를 꽃놀이를 식히는 것은 어떠실까요



[www.ficcc.jp/foreign/](http://www.ficcc.jp/foreign/)

● 새 사무소는 후지미노역에서 도보 20 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최종 페이지를 봐 주세요.